

[주간 카.이.돌]2021년 1월 1주차 자동차 업계 이슈 정리

✎ 최정필 기자 | ⓒ 승인 2021.01.08 11:14

한주 동안의 자동차업계 이슈를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이번주는 어떤 일로 뜨거웠을까요?

카매거진에서 선정한 이슈를 살펴보시죠!





◆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로운 UI/UX, MBUX 하이퍼스크린

메르세데스-벤츠가 독일 현지 시각 7일 오후 2시 메르세데스 미 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대형 럭셔리 전기 세단 EQS에 탑재될 차세대 MBUX 하이퍼스크린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MBUX 하이퍼스크린은 인공지능(AI)을 통해 인포테인먼트, 컴포트 및 차량 기능 조작과 디스플레이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 전 영역에 걸쳐 있는 대형 곡선의 스크린은 직관적이고 간편한 동시에 감성적인 디지털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순수 전기 럭셔리 세단 EQS에 선택품목으로 제공되며, 자동차 전체의 정서적 인텔리전스를 상징하는 동시에 학습 능력 또한 뛰어나다고 합니다.



MBUX 하이퍼스크린은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제어 및 디스플레이 컨셉이 완벽하게 사용자에게 맞게 개인화되며,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편의품목과 차량 내 다채로운 기능에 대한 맞춤형 제안을 제시한다고 하네요. MBUX 하이퍼스크린의 '제로-레이어(Zero-layer)' 기능은 사용자가 세부 목록을 탐색하거나 음성으로 명령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주요 기능들을 배치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MBUX 하이퍼스크린은 운전자뿐 아니라 조수석에 탑재된 별도의 디스플레이 및 제어 장치를 통해 동승자에게도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세심한 어시스턴트가 되어준다고 하네요.

MBUX는 메르세데스-벤츠 차종의 작동 방식을 획기적으로 간편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지난 2018년 출시된 더 뉴 A-클래스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된 후, 현재 전 세계 180만 대 이상의 메르세데스-벤츠 승용 및 밴(van)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뉴 S-클래스를 통해 학습이 가능한 2세대 MBUX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는데요. 새로운 EQS와 함께 이번에 공개된 MBUX 하이퍼스크린을 통해 차세대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공개된 MBUX 하이퍼스크린을 미국 현지 시각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사상 최초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2021 CES'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Movement that inspires

◆ 기아차 신규 브랜드 로고 공개, '즐' 아니랍니다!

기아자동차가 신규 로고와 브랜드 슬로건을 공개하는 '로고 언베일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채널을 통해 진행된 언베일링 행사는 총 303대의 드론이 하늘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새로운 로고를 그리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폭죽과 동시에 발사된 가장 많은 무인항공기' 분야에서 기네스북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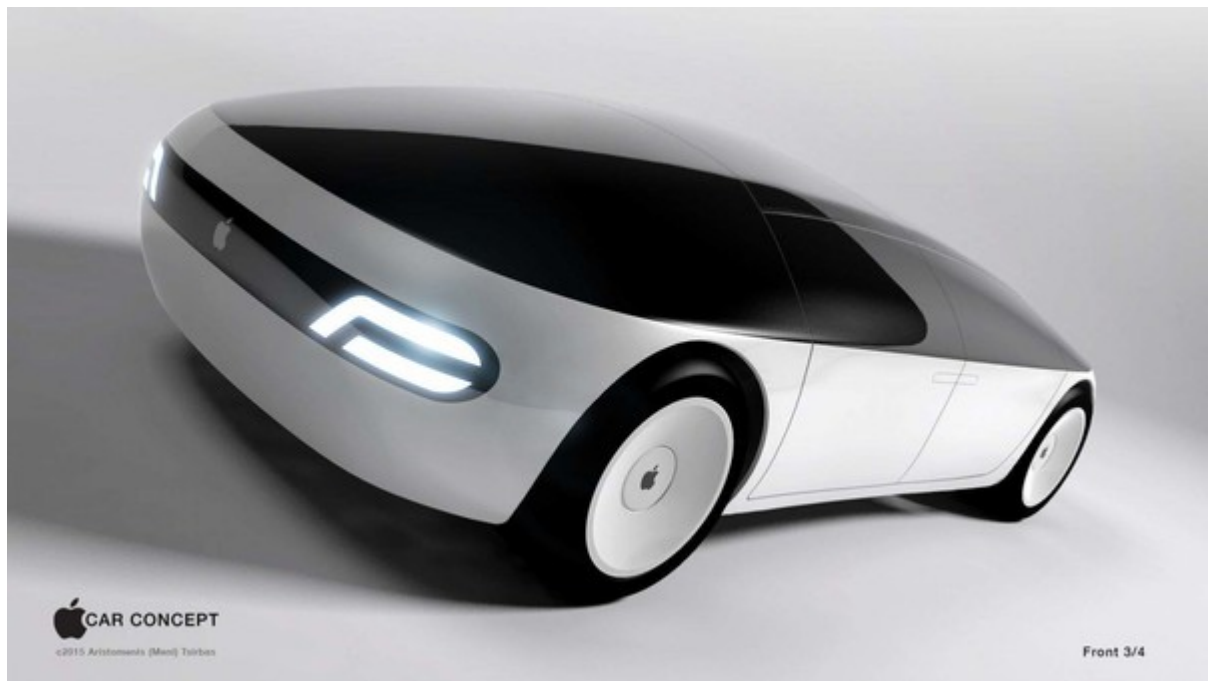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전략 'Plan S(플랜 에스)'의 일환입니다. 사업 재편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건데요.

신규 로고는 기아차의 새로운 브랜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균형'과 '리듬', 그리고 '상승' 세 가지 디자인 컨셉으로 개발됐습니다.



먼저 '균형'은 기존 사업영역에서의 고객 만족은 물론, 미래 지향적인 제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새로운 고객경험을 제시해 나가겠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요. 두 번째 콘셉트인 '리듬'은 새로운 로고의 선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고객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겠다는 자세와 고객에게 영감이 되는 순간을 계속해서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승'은 진정한 고객 관점의 새로운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기아의 열정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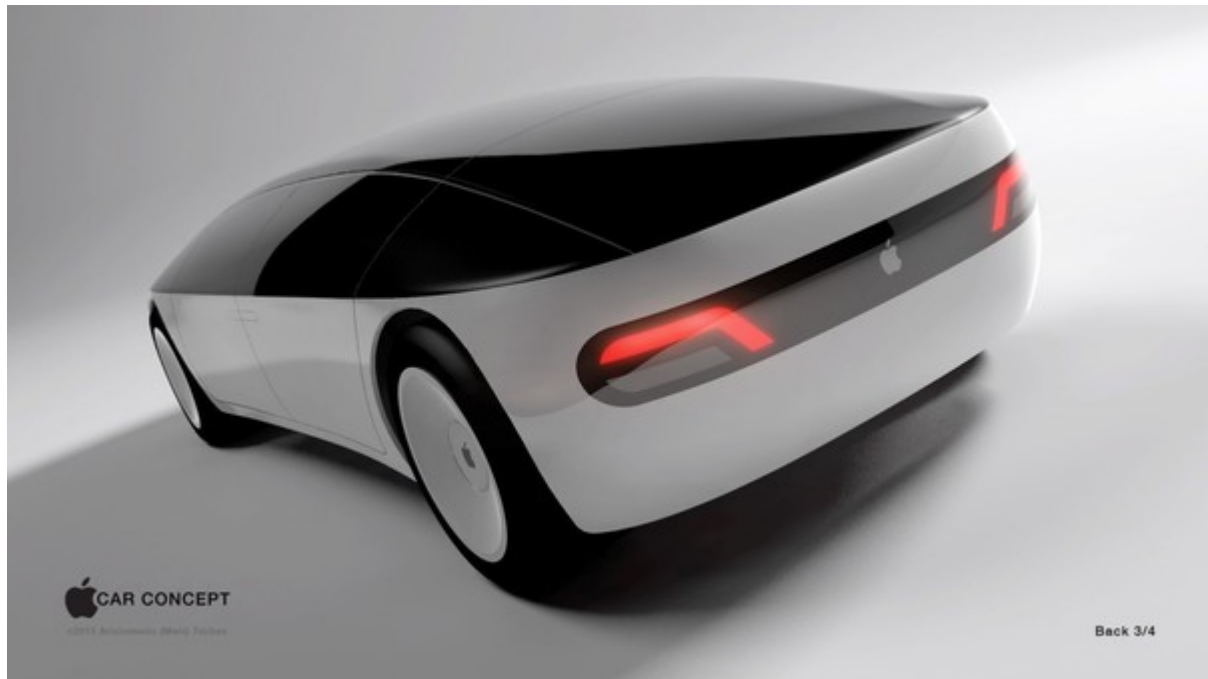
신규 로고와 함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무브먼트 댓 인스파이어스(Movement that inspires)'도 제시했습니다. 슬로건을 비롯해 보다 자세한 브랜드 지향점과 전략 등은 오는 15일(금) 오전 9시부터 기아자동차 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될 '뉴 기아 브랜드 쇼케이스'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소문 무성했던 애플카...를 현대차랑 만든다고요?

바로 오늘이죠. 현대자동차와 애플이 '애플카'를 공동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개발부터 생산과 탑재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손을 댄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대차를 비롯한 관련 계열사의 주식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청소기 업체로 더 익숙한 기술기업 다이슨도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뛰어든 적이 있었지만 결국 포기를 했기 때문이죠. 거기다 테슬라가 여러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동차라는 제품을 오랫동안 만들어온 회사들이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다면 바로 도태되기 시작할 것이다' 였습니다. 결국, 자동차를 만들어본 회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보니 테슬라 모델 Y도 국내 출시 일자가 다가왔네요. 오는 1월 13일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반응은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애플이 그런 협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애플이 여러 자동차 회사와 협의 중이고 우리도 협의 중입니다'라는 식의 반응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우리나라에서야 엄청난 욕을 받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규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애플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 있지만, 폐쇄적인 정책을 펼치기로 유명한 애플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협업이 잘 상상이 가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다!'라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요동쳤다는 것은 두 회사의 협업이 가져올 파장이 꽤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출시도 앞두고 있는 현대차 그리고 애플과 함께 만들 애플카.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최정필 기자 choiditor@carmgz.kr